

IMO 선박도장기준 국제협약 오는 5월 채택예정

선박의 발라스트탱크에 적용될 보호도장기준

물을 넣어 배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발라스트탱크에 적용될 보호도장기준(페인팅기준)이 오는 5월10일 국제해사기구(IMO) 제81차 해사안전위원회(IMO/ MSC81)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채택될 기준의 주요 항목으로는 건도막(NDFT), 덧칠(Stripe coating), 모서리가공(Edge grinding), 청수세척(Pre-washing), 표면염분도(Soluble salt limit), 분진기(Dust grade), 표면처리기준, 탑재부 표면처리기준, 건도막 두께 측정 등이다. 그동안 보호도장기준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영국 런던 IMO본부에서 지난달 20-24일 제49차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IMO/DE49)가 개최됐었다.

우리나라는 이 위원회에서 선주단체 및 선주국가(ICS, INTERTANKO, 그리스 등) 등과 맞서 과

도한 도장기준의 불합리성을 과학적 및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이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도장기준을 제안했다.

또 지난 1년동안 IMO 특별작업반을 구성해 도장기준 초안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일본, 중국과 세미나 개최 및 기술교류 등 공조체제를 구축, 이 회의에서 유럽 선주국가에 맞서 한국 조선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해양부는 보호도장기준이 채택돼 발효될 경우 국내 조선소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9일 조선업계 관계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부는 특히 조선소 마다 도장 전문인력 확보와 엄격한 도장기준 적용으로 선박 건조공정에 변화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선박건조단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국내 조선업계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해 해상교통관제(VTS) 서비스 크게 향상

단계별 집중관제, 실시간 정보서비스 등 실시

부산, 인천 등 전국 14개 주요항만에서의 해상교통관제(VTS)서비스에 대한 지난해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인 관제서비스 제공과 해상교통환경 개선으로 선박사고가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단순정보제공 위주의 관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고객 지향의 물류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단계별 집중관제, 실시간 정보서비스 등을 실시했으며, 특히 해경과의 합동관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각 항만의 관제구역 내에서의 선박사고가 총 6건으로 전년 대비 33.3% 감소하였다.

항만이용자에 대한 VTS 정보서비스 제공실적도 2004년 80만8759건에서 지난해에는 98만818건으로 21.3% 증가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자체 분석한 관제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선박사고 예방건수도 288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서비스 향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항만이용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관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5.9%로 조사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VTS시스템 도입운영을 통해 운항선박의 안전과 항만교통질서 유지로 항만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우리항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